

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丛书

5

중일한문화산책

김호웅 저

ZHONG RI HAN WEN HUA MAN YOU



출판사

ZHONG CHAO HAN RI WEN HUA BI JIAO YAN JIU CONG SHU

중일한문화산책

ZHONG RI HAN WEN HUA MAN YOU



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丛书



ZHONG CHAO HAN RI WEN HUA BI JIAO YAN JIU CONG SHU

ISBN 7-5389-1281-9



9 787538 912814 >

ISBN 7-5389-1281-9/H·59

定价: 39.00元

ZHONG RI HAN WEN HUA MAN YOU

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丛书

ZHONG CHAO HAN RI WEN HUA BI JIAO YAN JIU CONG S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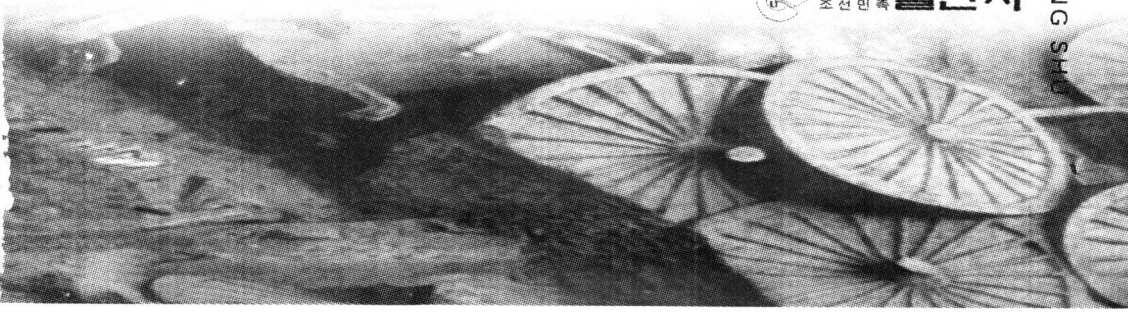
중일한문화산책

ZHONG RI HAN WEN HUA MAN YOU

김호웅 저



출판사
김호웅
문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日韩文化漫游/金虎雄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9(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丛书;5)
ISBN 7-5389-1281-9

I. 中... II. 金... III. ①朝鲜族—民族文化—中国—文集—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②民族文化—日本—文集—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③民族文化—韩国—文集—朝鲜语(中国少
数民族语言) IV. ①K281.9-53②G131.3-53③G131.26-5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107051 号

书 名/ 中朝韩日文化比较研究丛书(第五卷)

中日韩文化漫游

著 者/ 金虎雄

责任编辑/ 金斗弼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640mm×965mm 1/16

印 张/ 25.5

字 数/ 392 千字

版 次/ 2005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5 年 10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281-9/H·59(民文)

定 价/ 39.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머 리 말

중국에 살면서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일본에 가볼수 있었다. 하지만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일본, 한국의 문화와 의식구조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중,일,한 3국의 문화와 의식구조를 연구하는 목적은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족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10여년간 여러 학술지, 문학기, 일간지에 발표한 글들을 묶어보았다. 중,일,한 문화와 의식구조의 비교연구라는 타이틀에 부응할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가지지 못했음을 자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목적에 접근할수 있는 체험적인 글들이라 보다 완벽한 리론저서를 쓸수 있는 기초작업은 되리라 생각한다.

변명이라 할가, 자기위안이라 할가, 한마디 하고싶다. 10여년간 군대로 놓고 말하면 분대장이나 다름없는 연변대학교 조선언어문학 학부 부학부장, 학부장을 하는 바쁜 일상이였지만 조선족사회의 부름에 부응해 언론이나 문단 활동에도 적극 관여했다. 가끔 《축사만 하는 교수》라는 뒤소리도 들었지만 사랑하는 조선족형제들앞에 나설 때마다 웃기를 여미고 축사 한번, 연설 한번이라도 알차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글은 평이하게,재미있게 쓰려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상아탑에 갇혀 고서만 뒤번지는 교수도 아름답지만 서민 대중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교수도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판에 앞서 길림성교육청 과학연구기금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음을 여기에 특별히 명시한다. 또한 필자가 없는 사이에 과학연구기금을 적극 주선했던 연변대학 김병민총장님과 리득춘, 박찬규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2005년 7월 1일

차례

머리말.....	(1)
제1편 중국조선족 문화의 산책.....	(1)
접목의 원리와 조선족 공동체의 진로	(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리고	(22)
《병아리 시비》제막식에 즈음하여	(25)
제6회 평화백일장을 축하하여	(27)
조선족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시민사회의 힘.....	(29)
배움에는 로소가 따로 없다	(31)
영원한 생명의 철학과 순환의 미학.....	(34)
종달새는 새장에 갇혔어도 봄을 노래한다.....	(37)
범민족문학의 출범을 위해.....	(39)
신문학과 설립 20주년 및 최상철교수 정년에 즈음하여.....	(41)
조선-한국문화의 력사와 전통 국제학술대회	(44)
한국학의 새로운 연구동태 국제학술회의	(46)
불우한 아동과 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48)
정판룡문학비 건립과정에 관한 보고	(52)
김학철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54)
치열한 작가정신과 문학적상상력.....	(57)
시인의 실험정신과 그 탐스러운 열매.....	(61)
려로형 플롯과 리얼리즘의 진면목	(68)
민족적 삶의 현장에 대한 예술적 조명	(71)



참신한 주제와 다양한 표현기법	(75)
연변문단의 반듯한 선비	(81)
중국조선족문단의 두 거장 (김호웅/ 황송문)	(87)
우리 서정시 흐름과 현주소	(103)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서정의 육화	(115)
근대에 대한 성찰과 조선족문학의 주제	(139)
백두산기슭, 연변문단을 둘러본다(황송문/ 김호웅)	(150)
《항미원조전쟁》과 중국문학	(168)
 제2편 일본문화의 산책	(188)
일본문화를 둘러보며	(188)
일본류학은 하늘의 별따기	(188)
부자의 나라와 《일벌레들》	(194)
술덤병물덤병-일본의 고추장 맛보기	(198)
일본인의 풍속과 세가지 수수께끼	(205)
일본생활 ABC	(210)
일본경제의 현주소는 어디	(218)
전통문화 그 미묘한 힘과 매력	(225)
일본인의 정교한 미소와 서비스정신	(230)
일본인은 약자에게 잔인하고 강자에게 비굴한가	(236)
일본인의 집단 의식	(242)
일본인의 직업 의식	(249)
일본인과 칼의 문화	(256)
충견 하찌와 수직사회 일본	(262)
무엇이든 작은것은 모두 아름답다	(268)
일본적인 발명의 철학-모방과 축소	(274)
사쿠라의 미학	(280)
오오무라선생	(288)
 제3편 한국문화의 산책	(303)
고구려인의 넋을 찾아서	(303)

재일동포의 후원으로 펼쳐진 뜻깊은 한국여행.....	(308)
강산도 빼여났어라, 사랑하는 고국땅	(316)
한 기업인의 철학(1)	(318)
한 기업인의 철학(2)	(321)
한 기업인의 철학(3)	(324)
근대 한국문학자와 상해.....	(327)
황포강, 양자강에 비긴 흰 도포자락.....	(353)
《북청 물장수》- 동훈선생	(380)
연변에 사는 안동의 선비	(396)

제1편 중국조선족 문화의 산채

· 론 문 ·

접목의 원리와 조선족 공동체의 진로

접목의 아픔을 접고/ 먼 이웃/ 남의 뿌리에서/ 모지름을
쓰면서 자랐다//

이 곳 토질에 맞게/ 이 곳 비에 맞춤하게/ 이 곳 바람에
어울리게//

있을 돌치고 꽃을 피우고//

이제는 접목한 자리에/ 든든한 태를 들렀거니//

큰바람도 무섭지 않고/ 한마당 나무들과 정이 들고/ 열
매도 한 아름 안고~ //

그러나 허리를 잘려/ 옮겨오던 그날의 칼소리//

가끔 메아리로 울려오면/ 기억은 아직도 아프다.//

—조선족시인 리삼월의 서정시 《접목》 전문^①

들어가는 말

한세기 반 남짓이 구축해온 조선족공동체는 1978년 개혁개방
후로부터 2005년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하

①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편, 《조중대역본-조선족명시》, 민족출판사, 2004 년.



고있다. 일방에서는 전면 붕괴의 위기가 왔다고 보고있고 다른 일방에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있다.

이른바 《위기설》에 의하면 경제위기, 인구위기, 교육위기 등으로 나누고있다. 필자가 보건대 이러한 위기의 근저에는 뒤흔뒤흔해도 조선족공동체 구성원의 도시, 해외로의 진출에 의한 전통적인 조선족농촌공동체의 해체일것이다.

이른바 《기회설》에 의하면 조선족공동체는 농업을 위주로 하던 촌락사회에서 공업, 상업과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산업사회로 진입하고있고 농촌공동체에서 근대산업과 도시문명과 이웃하는 코리안타운 형태로 전환하고있다고 보고있다.

아무튼 200만 조선족의 25%가 원 거주지를 떠나 동북3성의 주요 도시 주변 특히 산해관(山海關) 이남과 해외로 이주하고있는 상황에서 조선족공동체는 심각한 지각변동을 경험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조선족공동체의 전망과 진로에 대해 리론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글에서는 근,현대 우리 민족의 3차에 걸친 이민물결의 공동성과 차이점을 짚어보고 조선족공동체의 성격, 제3차 이민물결에 의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존재방식과 의미,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저 한다.

1. 세차례의 이민과 조선족의 역사적 주체성

중국의 조선족공동체는 고구려 발해 유민의 후예들이 아니라 근대이민에 의해 형성되었다. 200만 조선족은 과경민족(跨境民族)의 후예들이다. 현재 하북성과 료녕성의 박가구(朴家溝)에 약 5천명의 조선족이 살고있는데 이들은 정묘(丁卯), 병자(丙子) 호란(胡亂) 때 잡혀와 만주귀족의 장원에서 일하던 농노들의 후예이다. 이들은 1950년대 자진해 만주에서 조선족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는 특례이다. 조선족의 절대 대부분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40년대 초까지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들어온 이민의 후예이다. 이를 제1차 이민이라고 할수 있다면 1945년 광복직후 대규모의 고국귀환을 제2차 이민이라

할수 있으며 최근 20여년간의 조선족인구의 류동을 제3차 이민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제 1 차 이민: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4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제1차 이민은 네번의 고조(高潮)를 이루었다.

첫번째 이민 고조는 19세기 후반이다. 청나라는 1875년 봉천성(奉天省)의 봉금령을 폐지했고 1981년에는 길림성의 봉금령을 폐지했다. 뿐만아니라 이 두 성에 무민국(撫民局)과 황무국(荒務局)을 설립해 조선과 산해관 이남의 가난한 백성들을 불러들여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로 이때 조선 북부지대는 해마다 재해를 입어 수많은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를 첫번째 이민고조라 하겠다.

1897년 청나라와 로씨야는 중동철도를 부설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03년 이를 개통시켰다. 이 철도부설공사는 수많은 조선 북부의 인력과 조기(早期)에 연해주에 가서 자리를 잡은 조선인 인력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철로가 부설되자 적잖은 조선인들은 철도연선(沿線)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거나 기타 잡역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를 두번째 이민고조라 한다.

세번째 이민고조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국권을 상실하자 수많은 농민들과 함께 의병장, 독립운동가, 교육자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 전과를 올려 항일투쟁을 견지했으며 룡정 등지에 동흥중학, 은진중학 등 신식학교를 꾸리고 《카톨릭소년》, 《민성보》, 《북향》, 《만선일보》 등 신문과 잡지를 펴내면서 조선족이민문화를 출범시켰다.

네번째 이민고조는 1936년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이다. 위만주국(偽滿洲國)과 조선 총독부는 이민협정을 체결하고 조선에서 위만주국에 1만호(戶)의 이민을 보내기로 했다. 1941년에 일본정부는 《개척단(開拓團)》이라는 명의로 조선 남부의 농민들을 동북 각지에 보냈다. 4차의 이민고조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투항



을 할무렵 동북 각지에 거주한 조선인의 수는 200만을 웃돌았다.

력사학계에서는 이민의 성격에 따라 제1차는 19세기 중반에서 1910년까지의 농민이민, 제2차는 1910년에서 1936년까지의 정치이민, 제3차는 1936년에서 1945년까지의 개척이민,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제 2 차 이민: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투항을 하자 중국의 동북 각지에 살고있던 조선인들이 대거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귀환했다. 광복된 조국에 돌아가 살려고 다투어 남하한것이다. 해방직후 동북 지역에 살던 210만 조선인중 40%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간것이다. 이 시기 재일동포는 60%가 고국으로 귀환했다.

동북지역에 그대로 남은 조선인은 토지개혁에 참가하고 학교를 세우고 중국의 제3차 국내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조건에서 조선족이라는 개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승인되지 못했다.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되고 조선족으로 불리게 된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이다. 1949년에 제정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에 의해 1952년 중국 국내에서 제일 큰 조선족 거주 지역인 길림성 연변에 조선족자치주를 세움으로써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널리 전해지게 되였고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반포되자 조선족은 기타 민족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력사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에서 1978년 개혁, 개방 이전까지의 이민사, 개척사, 투쟁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족은 강한 역사적 주체의식을 발휘했음을 알수 있다.

조선족은 과정(跨境) 민족, 또는 이민(移民)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재구미 동포나 재일 동포와 비슷하다고는 할수 있지만 또 많은 부동한 특징을 갖고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조선족은 재미, 재일동포 등 다른 지역의 백의민족 동포사회와는 달리 자기의 특수한 이민사, 개척사, 투쟁사를 갖고있다. 즉 조선족은 이미 다 개척해놓은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그 기존질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온 재구미, 재일 동포들과는 달리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특수한 이민사, 개척사, 투쟁사를 갖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족의 역사적 주체성, 능동성이 재일, 재구미 동포들보다 더 강했다고 할수 있다.

첫째, 조선족의 특수한 이민사와 개척사, 투쟁사에서 본 그들의 역사적 주체성과 능동성이다. 조선족은 재미, 재일, 재독, 재유럽, 재남미 동포들처럼 다른 민족들이 이미 다 개척해놓은 땅에 들어온것이 아니다. 영국의 청교도 이민들이 미국 동부에 이민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듯이 중국의 조선족도 중국의 동북지역에 와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땅을 개간했다. 중국조선족의 이민은 개척이민(開拓移民)의 성향(性向)이 아주 강하다.

조선족이민사에서 가장 이른 이민은 1845년으로 소급(溯及)된다. 1845년 평안북도 초산군의 80여세대의 농민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통화, 관전, 훈강 지역에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벼농사를 지었고 그뒤를 이어서 환인, 신민, 안동 등지에 조선농민들이 들어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그뒤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함경북도의 농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지금의 연변지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중국조선족의 동북지역으로의 이민은 중국관내에서의 한족 및 기타 민족의 《창관둥(闖關東, 동북에 들어와 날품팔이하거나 정착해 살아감)》과 궤(軌)를 같이한다. 아무튼 조선인들은 중국의 한족(漢族)을 비롯한 기타 민족과 함께 동북의 미개척지를 개척했으며 동북땅에 도작문화(稻作文化)라는 새로운 농경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조선족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개척하는 개척민으로서 중국에 공헌이 있는 민족이며 좌향기성(坐享其成, 가만히 앉아서 남이 이룬 성과를 누리다) 한 기타 이민집단들과는 그 성향이 다르다.

둘째, 조선족의 특수한 투쟁사와 혁명사로부터 본 조선족의 역사적 주체성과 능동성이다. 조선족은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서 20세기 50년대초까지 한족 등 중국의 기타 민족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반제반봉건투쟁과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에서 중화



민족의 해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그리고 《보가위국(保家衛國)》을 위하여 불후의 공헌을 하였다. 일찍 중국의 구민주의혁명시기 식견 있는 조선인들은 손문(孫文)을 따라 청왕조를 전복하는 투쟁에 헌신했고 1920년에는 김좌진, 홍범도의 지휘하에 봉오동(鳳梧洞), 청산리(靑山里) 전투에서 일제를 타격했으며 중국의 북벌전쟁에도 200여명의 조선청년들이 참가해 공훈을 세웠다. 황포군관학교에는 제1기부터 제7기까지 교관과 학생중에 200여명의 조선인이 있었으며 1927년 중국공산당이 령도했던 광주, 남창 봉기 중에 조선인이 각각 200명, 150명이 참가했고 2만5천리장정대오에도 양림(1898-1936년), 무정과 같은 조선인들이 있었다.

동북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인들은 더욱 많은 피를 흘렸다. 1931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14년동안 동북 항일무장투쟁에서 10여만의 조선족인들이 참전했고 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이 항일성전(聖戰)에서 목숨을 바쳤다. 연변지역의 항일전쟁시기에 목숨을 바친 조선족렬사는 3,026명인데 연변지역 항일렬사의 96.8%를 차지한다. 중국조선족은 항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으며 불멸의 공훈을 세웠다.

1946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4년 해방전쟁중에서 조선족 청년 6만 3천명이 중국인민해방군에 참가했다. 제4야전군의 164사, 166사, 156사 등은 조선족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료심(遼沈), 평진(平津) 전역과 상서(湘西) 토비숙청, 사천(四川) 해방, 해남도(海南島) 해방에 모두 우리 조선족 전사들이 목숨 바쳐 싸웠다. 해방전쟁시기 연변 6개 현만 하더라도 1946년부터 1948년까지 5만 2천명의 젊은이들이 인민해방군에 참가했고 민병, 공안, 지방 무장대오 등에 입대한 사람까지 치면 무려 10만명에 달한다. 그래서 중국의 시인 하경지(賀敬之)는 《산기슭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여있고 마을마다 력사비가 솟아있네(山山金達萊, 村村烈士碑)》라고 노래했다.

셋째로 조선족의 민족교육과 언론, 문학예술사로부터 본 조선족의 력사적 주체성과 능동성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제1차 이민은 농민이민이 위주였지만 제2차 이민은 의병장, 독립운동가, 교육가들이 합세해 정치이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들 엘리트들은 통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변지역, 나아가서 동북3성의 조선인 집거지에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언론과 문학예술활동을 벌렸다. 해방후 중국공산당의 민족교육에 힘입어 조선족의 교육과 언론, 문학예술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는 조선족이 1세기 반이라는 이민사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도 민족적정체성을 고수하고 그대로 조선족으로 살아남게 된 기본원인으로 된다.

조선족은 이와 같이 역사적 주체성과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 중국의 주류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자신의 우수성을 확보할수 있었기에 당당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될수 있었다. 이 점은 중국조선족이 기타 해외동포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며 중국의 기타 소수민족과도 다른 특징이다.

물론 조선족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식은 부작용도 파생시켰다. 자기의 주제파악을 하지 못하고 과분한 정치적극성을 발휘할 때가 있다. 특히 연변의 조선족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중국의 혁명은 북경에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연변에서 시작된다.》는 조크가 생겨나기까지 했다.

아무튼 중국조선족은 자기의 특수한 투쟁사와 혁명사를 갖고있으며 이로 하여 중국에서 살아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갖고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그 피의 대가(代價)로 중국으로부터 당당하게 얻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제3차 이민:

1978년 중국에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자 조선족의 제3차 이민이 시작되었다. 현재 조선족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50만 인구가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한국, 일본,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 그리고 할빈, 묵단강, 장춘, 길림, 연길, 심양, 대련 등 동북의 주요 도시와 산해관 이남의 도시와 연해지역에 진출했다.

외국에 나간 경우를 보면 현재 한국에 12만명, 일본에 2만명, 미국 뉴욕 및 뉴저지 일대에만 1만여명이 살고있는데 뉴욕 및 뉴저지



의 경우 그들은 조선족협회까지 출범시켰다고 한다.^① 연변의 경우만 보아도 연인수로 30 만명이 외국에 나가 일했거나 거주하고있다고 한다.^②

중국 경내 조선족의 류동상황을 보기로 하자. 지난날 조선족은 주로 동북3성과 내몽골에 살았지만 지금은 송화강기슭으로부터 주강(珠江) 삼각주까지 동부의 해변도시로부터 서부의 파미르고원까지 널리 퍼져있다. 동북지역과 내몽골지역의 30,40만 조선족 인구가 산해관 이남과 외국에 나가 살고있다. 연변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1년 현재 농촌지역의 25% 인구가 도시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살고있다. 현재 청도, 연태, 위해를 중심으로 하는 산둥반도에만 12만명의 조선족들이 살고있는데 그들은 이 지역에 진출한 6만여명의 한국인들과 합세를 하여 무려 20만에 육박하는 우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있다.

조선족의 3차례 이민의 상호 비교:

1) 제1차 이민은 남에서 북으로, 조선반도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으로의 이민이며 고국에서 외국으로의 이민이다. 제1차 이민은 일제의 침탈에 의한 타의적인 이민의 성격이 다분하다면 제2차와 제3차는 공민권 또는 부의 축적을 위한 자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2) 제1차 이민과 제2차 이민은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 둔 단선(單線)적인 이민이라면 제3차 이민은 다국적, 전방위(全方位)적인 이민이다.

3) 제1차, 제2차 이민은 농경문화에서의 지역적인 이동이라고 한다면 제3차 이민은 농경문화에서 산업문화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4) 제1차 이민은 중국 국민과의 융합을 의미하고 제2차 이민은 모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만 제3차 이민은 다국 국민, 적어도 조선족, 중국인, 한국인과의 융합을 의미한다.

① 리동춘,《뉴욕 조선족사회 현주소 조명》,《주간 흑룡강신문》, 2005년 3월 20일-26일, 21면.

② 潘龍海, 黃有福 主編,《跨入二十一世紀的中國朝鮮族》延邊大學出版社, 2001年, 72페이지